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경제학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아나키즘경제학

4th of September 2009 / 24th of November 2012

Retrieved on 4th of September 2009 from <http://www.anarchism.pageabode.com/anarcho/the-economics-of-anarchy> Retrieved on 24th of November 2012 <http://anarchism.pageabode.com/anarcho/anarchist-economics>

Notes: Two texts put together (The Economics of Anarchy and Anarchist Economics)

kr.theanarchistlibrary.org

4th of September 2009 / 24th of November
2012

차례

아나키의경제학	3
아나키즘의기원	4
아나키즘의여러분파들	4
소유비판	5
사회화	6
자주경영	7
상호주의	7
집산주의	9
코뮌주의	9
근거	10
달성의방법론	11
아나키스트경제학	12
도입	12
대안의필요성	13
아나키스트경제학은무엇인가?	13
미래식당에서의레시피는다음과같을것이다...	13
(최선의경우) 불가능하거나, (최악의경우) 국가자본주의인맑 시즘	14
현재를분석함으로서미래를그리기	15
현재의투쟁으로미래를건설하자	16
(자유지지주의적) 사회주의의벽돌들	17
자유지지주의적코뮌주의	18
결론	20
읽을거리	20

아나키의경제학

우리가살아가는지성의시대를마무리하고있는자, 새라페일린을인용하건대, “지금은사회주의실험의시기가아니다.”1930 년대이후최악의경제불황을겪고있는데말이다! 아나키스트들은지금이야말로정확히그시기라고본다.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에한정해서말이다.

(또다시) 불황을겪고있는자본주의와국가사회주의의실패는명확한교훈을던진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신자유주의가되었고 (신노동당? 신대처주의겠지!) 스탈린주의가붕괴한지도 20 년이지났다. 스탈린주의는국가자본주의와당에의한지도를사용하여자본주의라는질병이사회주의라는약보다더매력적인것으로보이게만들었다. 아나키스트들은이에대하여무고하다고자신해도좋다. 바쿠닌과그동료들은이결과가현실이되기수십년전부터이를예견했으니까말이다.

그렇다면이제대안에대하여말해보자. 이전에, 자본주의는경제의가장최근의형태임을잊지말자. 프루동에게“정치경제학의근본해악은일시적조건, 즉사회가귀족계급과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나누어진다는것을최종적상태로단언하는”것이다. 노예노동이있었고, 농노들이있었으며, 그리고자본주의가등장한다. 자본주의가무엇인가? 프루동은자본주의가“우리가지금지나고있는시기, 임금노동이라는특별한성격으로정의되는시기”라고말한다.

즉, 자본주의는노동의고용에기반한, 노동 (자유) 의부분을사용자에게판매하는것에기반한경제체제라하겠다. 아나키스트들에게, 이것은잘쳐줘야“임금노예제”다.

아나키즘은노동자의연방을, 자유로운노동을원한다. 이는노동하는자가그노동을통제하여야한다는것이다. 장기적으로우리는노동의철폐(노동과놀이가같은것이되는) 것을꿈꾼다. 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우리는“모든인민이자유로운노동, 즉스스로의노동과자유를, 그것을통하여부를축적하는타인에게팔지않아도되는상황을건설”하려한다.

아나키즘의기원

아나키즘은도서관에틀어박힌사상가들의작품이아니다. 그근원은, 크로포트킨이그의절작“현대과학과아나키즘”에서강조한것처럼, 노동계급인민들의착취와억압에대항한투쟁과자주적행동에있다.

우리는더나은사회와자본주의를관념적으로비교하지않는다. 대신우리는자본주의안에서자본주의에대항하는투쟁에서만들어질새로운세상의구조를바라보려한다. 그렇기에우리는파업을조직하기위한총회와위원회들이자유로운사회에서는생산을조직하는현장조직이될것이라바라본다. IWW 를인용하자면, 옛세상의껍질안에서새로운세상을건설하는것이다.

아나키즘의여러분파들

아나키즘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 에는일반적으로세분파가있다. 상호주의, 집산주의, 코뮌주의가그것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는목적이라기보다는전술에가깝고, 그렇기에그지지자들은저셋중하나를지향한다. (일반적으로이들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를지향한다. 최초로아나키즘적조합주의전술을구상한바쿠닌이스스로를집산주의자라고자칭하였음에도말이다.) 실천에있어, 여러영역들에서인민의의사와마주한조건에따라여러방식들을실험하게될것이다. 자유로운실험은자유의지주의원칙의기본이다.

이세분파가특정문제에대해다른의견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이들은특정한핵심원칙들을공유하고있다. 만약누군가가어떠한것을“아나키즘”이라고부르지만이중하나라도부정한다면, 우리는그것이아나키즘이아니라고말하면된다.

첫번째원칙은사적소유가아닌점유의원칙이다. 프루동은 < 소유란무엇인가 > 에서자유사회에서는사용권이소유권을대체할것이라고말한다. 이는자연스럽게부의평등한분배를의미하기도한다. 두번째원칙은사회화이다. 이는작업장과토지에대한자유로운접근권을, 결과적으로지주와사용자들의종식을의미한다.(이는“점유와사용”이라고도불린다. 세번째원칙은자발적조직, 혹은생산자에의한생산의자주통제다. 이러한노동자조직의이름은다양할수있지만 (협동조합, 노동조합, 집단생산, 노동자기업등) 원칙은동일하다. 마지막핵심원칙은자유로운연방이다. 이는동적경제에필수적인자유연합간의자유연합에, 생산자간의, 공동의이해관계에기반한협력적연방간의수평적연결에기반하는것이다. 이는탈중심화에그뿌리를두고있기도하다.(자본주의사회의기업

키의경제학이라는제목으로발제한적이있다. 이발제에서나는아나키스트주요분파들에대하여요약한바있다. 프루동의상호주의는 < 소유는도둑질이다! > 의서문에서논의되었으며, < 기반을닦다: 아나키스트경제학에대한프루동의기여 > 에서요약되었다. 아나키스트 FAQ 의섹션 H 는맑스주의적경제상의문제들을다룬다. 특히, 섹션 H.6 은자본주의적기구를도입하기위하여불세비키가감행한공장위원회에의공격 (크로포트킨이당대에 썼듯, 우리는“코뮌주의를어떻게도입하지말아야할지를러시아를통해배우고있다”) 을다루고있다. 그리고만약고유주의자²께서이글을읽고계시고, 내가사용하는바자유지의주의라는단어가잘못되었다고주장하신다면, 그단어를만들어낸것은우리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말해두겠다.

² 역자주 - 아나코-캐피탈리즘의분파. 어떠한도덕적가치도소유권에우선할수없다고주장함.

하지만 생산은 단순히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격의 절감이나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문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윤극대화나 시간의 절감과 같은) 단일한 객관적 기준을 거부하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이것이 싼가?”에 기반하였다면, 자유의지주의적 경제는 “이것이 옳은가?”에 기반할 것이다.

결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자발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기심의 예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학은 그렇다고 말한다.

크로포트킨이 강조하였듯,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조직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생산을 재조직하여 그것이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유일한 개인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거부하거나, 타인의 비용을 대가로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측면들에 대한 것 말이다.

맑스주의자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현재 경제 구조가 계급 위계 내의 이윤 동기가 만들어 낸 상처들로 가득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단기적 목적은 자본을 수용하여 그것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장기적 목적은 산업과 산업 구조를 변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레닌이 말한 것과 다르게, 자본주의 아래에서 “효율적인” 것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다.

먼저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나키스트 경제학은 혁명이후에, 아나키스트 경제가 만들어 진 이후에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의 시야는 자본주의적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급과 위계의 철폐 위에 태어날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밑그림은 자본주의에 관한 우리의 분석과 비판에, 그에 대항한 투쟁에, 우리의 희망과 꿈에 기반할 것이다.

읽을거리

이 문건은 아나키즘 경제학에 대한 단편적 소개글에 지나지 않는다. 아나키스트 FAQ 의 섹션 1 은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어, 자주 경영, 사회주의, 시장의 문제, 탈집중화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수년 전 나는 아나

과 스탈린주의 사회의 국가 경제가 증명하듯, 중심화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상향식으로, 위임되었지만 소환 가능한 대의원들을 바탕으로 조직될 것이다.

바쿠닌은 “토지는 경작자에게, 농업 코뮌에게 속해야 한다. 생산의 도구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조직에게 속해야 한다”고 이러한 종류의 경제를 요약하였다. 자주 통제적 사업장에서 의사결정 요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다. 크로포트킨을 인용하자면, 제정신박한 사회의 경제는 “인간의 필요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단에 관한 연구.”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생태주의적 고려를 더해야 하며, 크로포트킨 역시 도이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 의고전 < 농장, 공장, 작업장 > 은 분명히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소유 비판

자유 경제에 관한 아나키스트의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의 자본주의 비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졌듯이,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말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먼저, 지주들은 세입자들의 생활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한다. 그렇기에 집세는 착취다. 다음으로, 임노동은 착취다.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프루동을 인용해보자.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소유자가 된다. 이 사실은 현재의 정치 경제학과 법학의 원리들 안에서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때, 우리 위선적인 경제학자님들처럼 봉급, 임금, 급료 등의 소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소유자들이다. 그가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만이 그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 < 일하는 자는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

이는 프루동의 “소유는 전제주의다”의 근거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프루동은 소유가 위계적 사회 관계를 만들고, 이 권력 구조는 소유자들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노동자들의 착취를 담보한다. 프루동을 다시 인용하자면,

“당신은 임노동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업무 지시만 큼이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선입견에 집착하는 사장 (...)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남들의 생각을 연구하면서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가지지 않는 것, 일용 할 빵과 일 자리를 잃을 두려움 말고 다른 자극제를 모르는 것이다. 임노동자는 그를 고용한 소유권자가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듣는

다. ‘당신이해야할것은당신과조금도관계없다. 당신은그것을감독할것 이전혀없으며, 당신은책임지지않는다.’”

결국, 전술하였듯, 소유권을사용권으로대체할필요가있다. 사적소유는오직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존치되어야한다. 알렉산더버크만을인용하자면, 아나키즘은

“생산수단과생산물의사적소유를철폐하고, 이를통하여자본주의적기업을철폐하려한다. 사적소유는오직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존치되어야한다. 즉, 시계는당신의것이될수있지만, 시계공장은인민에게속해야한다는것이다. 토지, 기계, 다른모든공공시설물은집단적으로소유되어살수도, 팔수도없어야할것이다. 실질적사용이야말로유일한명분으로취급될것이다. 소유가아닌점유를실현할것이다. 탄광노동자들의조직이탄광을책임질것이다. 하지만그들은탄광을소유하는것이아니라, 탄광의가동위원회가될것이다. 철도노조가철도를운영할것이고, 다른산업에대해서도이와같다. 공동체의이익을위하여협력적으로운영되는집단적소유가이윤을위하여사적으로구성되는사적소유를대체할것이다.”

프루동은이를“주인이없는점유자들”이라고요약한다.

사회화

모든아나키스트들이“사회화”라는단어를사용한것은아니지만, 이것은자유사회에의필수적기반이며, 당연하게도이개념은아나키즘의근간이다. 이단계를거쳐야만생산수단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담보되고, 결국전반적인자주통제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 엠마골드만과존모스트가주장하였듯, 사회화는“논리적으로모든주인과하인의관계를삭제한다.”

이는아나키즘이아나키즘이라불린순간부터, 아나키스트들의입장이었다. 1840 년프루동은“토지는우리생명의보존에필수불가결한사물”이며, “따라서공통의사물이고, 따라서전유될수없는것”이라고, “모든축적된자본은사회적소유이므로, 누구도배타적인소유권을가질수없다”고주장했다. “농부는그가경작하는토지를전유하지않”으며, “모든자본은(…) 집단적노동의결과물”이기에“집단적소유”가되어야한다. 당연하게도, 프루동은“민주적으로조직된노동자조직”을주장했고, “조직의규약아래부의이전은노동의도구에적용되지않을것이므로, 불평등의원인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

경제학자데이비드엘러만이설명한것처럼, 민주적생산현장은“사회적공동체이고, 생활의공동체는아니지만노동의공동체이다. 민주적현장은현장의공화국, 아니공동의통치(res publica) 를건설하는것이다. 생산의궁극적통제는그기업에서일하는인민들의권리로주어질것이다.

생산상황의변화를반영하는이상 (이상황이라는것이독점이나이윤등자본주의적조건에의하여왜곡된것이라해도) 말이다.

그렇다면가격이없이자원을분배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무엇이냐는질문은당연히제기될수밖에없다. 하지만이질문은당연하지않다. 이를테면, 금과납은비슷한사용가치를가졌다. 왜하나를사용하고, 다른것은사용하지않는가? 시장때문이다.(금이 1kg 에 100 파운드이고, 납이 1kg 에 10 파운드라는것은무엇을선택할지고르는것을단순하게만든다.) 그렇기에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경제에서는, 인민들이실질적인비용과생산의조건에대하여, 시장의왜곡효과없이통지받아야한다. 크로포트킨이말하는것처럼, “아직도우리가가격이라고부르는것을그저우리의행동을지도하는맹목적최고지도자로받아들이는것보다, 그종합적결과를분석하는것을시작하지못하였나?” 그렇기에“우리는가격을분석”하고, “그서로다른요소들을구분”하여우리의경제적, 사회적사결정을위하여통지할필요가있다.

그렇기에우리는자유로운사회의연방적구조를통해자원분배의가이드라인에합의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의사결정의다양한요인들에대한가중치는생산물을만들어내는각단계의비용-편익분석을통하여만들어질수있다.(이전의결정이옳았고, 비용에대한소통이이루어졌다는전제로) 이는객관적인가격을 (생산에소요된시간, 에너지, 자원) 반영할수있게할것이다. 하지만수요와공급의변화는어찌할것인가? 이는중요한문제다.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사회는요구(수요) 에따라재화를생산(공급) 할것이기때문이다. 무엇보다, 각각의작업장들이예상치못한상황들, 즉생산이나공급의단기적변화에대비하여재고를유지할것임은상식적인일이다. 더하여, 각작업장들은요구와 (혹은) 생산의상대적차이를포함하고있는희소성지표출가지고있을것이고, 이는다른작업장들이대안을찾을수있도록이용될수있을것이다. 그렇기에만약하나의생산물의공급에차질이생긴다면, 희소성지표가오를것이고, 다른이들에게다른작업장에연락하라거나대체제를물색할필요가있음을알릴수있을것이다.

작업장들의연방은둘모두의변화를점검할방도를찾을것이다. 그리고이로써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투자나투자철회를조직하게될것이다. 이는공동체내에서의, 이해관계자집단과사용자조직과연방에서의논의에기반하여이루어질것이다. 투자역시다른층위에서이루어질것이다. 개별적작업장들은조합원들의더많은자유시간을위하여생산시간을줄이고, 생산량을늘리기위하여투자할것이다.(그리고이것이창조적작업과생산성에대한진정한인센티브가될것이다.) 연방조직의필요성은, 서로다른결정들이서로다른층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그사실에구체적으로근거한다.

관적필요에의하여결정될것이다. 이는이운동기에따라결정되어기술이요하는규모로만족하지못하는경향이큰자본주의사회에서의그것과는다를것이다.

나아가생산은누적에기반할것이고, 분할에기반하지는않을것이다. 업무의분장이분업을대체하여육체노동과정신노동을, 산업노동과농업노동을조합하게될것이다. 농업과산업은자유공동체에서공존할것이고, 인민들에게다양한종류의노동을제공할것이며, 주문자와생산자사이의분할을없앨것이다. 흥미로운일을할수있는행운의소수와불결한환경에서지루한일로그통받는다수의분할역시중식할것이다.

이는물론작업장의환경과노동그자체의변혁을내포하고있다. 많은사람들은자유지지주의적사회주의가자본주의적인산업구조와노동의방식을가져와내버려둘것이라생각하는듯하다. 과연사회혁명이후에도노동자들이이렇게할까?

자유지지주의적코뮌주의

다시한번, 이것들은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에서공통적으로보이는이론이다. 분파간의핵심적차이는분배의문제에있다. 소비를이루어진노동에기반하여조직할것이나, 아니면코뮌주의적으로조직할것이나의문제, 즉, 오래된행위와필요논쟁이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이코뮌주의자임은분명하다. 여기서코뮌주의자(코뮤니스트)라는것은소비에트연방에서의그공산주의자라는기하는것이아니라, “능력에따라일하고, 필요에따라분배한다”는의미에서그러하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이것이최선이라는것에동의할것이다. 그이유는크로포트킨이잘설명하였기에, 굳이여기에서요약하지는않겠다.

이러한체제가빠르게달성될수있는가는, 얼마나정교하게작동할것인가는아나키스트서클들에게논의할여지가없는것이였다. 자유지지주의적코뮌주의사회는그사회를건설한이들의열망과, 그들이마주하는객관적조건들에기반하여발전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오늘날그러한체제가가져올당연한문제들에대하여논의할수있고, 하여야한다.

상호주의와는다르게, 상품의가격이란존재하지않을것이다. 이윤추구동기는경제적공황을가져오고, 자본주의아래에서불확실성을더한다. 그리고비자본주의적인시장에서도역시많은문제가있을것이라보는것은합당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시장가격은경제적사결정의이정표가될수있다. 그가격이노동, 원자재, 생산소요시간등실질비용을반영하는이상(물론그과정에서더많은것들을무시하거나, 숨기지만말이다.),

이분석은기업이사회화되면서도, 국유화되지않는다는의미에서‘사적인것’으로남을수있는지를보여준다.”

자주경영

사회화의논리적귀결은노동시장이없어지는것을의미한다. 인민들은단순히가입할생산자조직을찾을것이고, 생산자조직은연대할조직들을찾을것이다. 임노동은과거의것이될것이고, 그자리는자주경영이대체할것이다.

이는“노동자자주통제”라고불리기도한다. 혹은, 프루동의말을빌리자면, “산업민주주의”이자현장을“노동자의작은공화국”으로만드는것이다. 크로포트킨은자유지지주의적경제는“대지에서, 공장에서, 광산에서일하는이들의조직이 스스로생산의관리자가되는”것에기반해야한다고말한다.

이는보통선거의원칙(그리고평등한구조)에, 소환가능한행정노동자에게, 육체노동과지식노동의결합에, 노동력의분할이아닌노동의분할에기반해야한다.

그렇기에프루동은작업장이“작업에참여하는이들의공동의, 불가분의자산”이어야지, “임노동자의육체와정신을착취하는주주들의집단”의것이어서는안된다고제안한다. 이는“조직에가입한모든개인”이“회사의자산모두를가지”고, “모든직위는선출되어야하고구성원들에의하여승인되어야하기”에“어떠한직위라도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은이러한원칙을내재하고있지만, 그들사이에는분명한차이가있다.

상호주의

처음으로이야기할분파는상호주의분파이다. 이분파에서가장유명한것은프루동일것이다.¹

이체계는시장을수인한다. 이는자본주의를내재하는것은아니다. 시장이그체제를정의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자본주의가발발하기수천년전에도시장은존재했다. 자본주의를특징짓는것은상품의생산과임노동

¹ 경제학계에서, 이체계는“조합주의”나“시장조합주의”라불리우기도한다. 특정한주제에대해거의모르는것은이러한오류적글쓰기를가능하게한다.

동이다.² 이는상호주의가상품의생산에기반하고있지만, 임노동은자주
경영과협동조합으로대체된형태를의미한다.

이는분배가필요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이루어진노동양
에의하여, 행위에의하여이루어짐을의미한다. 노동자는그노동의모든
생산물을가져야하지만, 이는다른협동조합원들의수고에대하여보상한
이후에그렇게하게될것이다. 이는협동조합이투자하지않을것을의미하
지않는다. 협동조합은세계전체로서그들의집단적수입의얼마만큼이개
별구성원들에게분배되고, 또얼마를협동조합의사용을위해남길것인지
를결정할것이라는의미이다.

신고전학과경제학자들은협동조합이높은실업율을낼것이라주장
한다는것을기억해보자. 하지만, 그이데올로기가항상그러하듯이, 이는
거짓된가정에기반한것이며, 결국그예측은관측된사실과전혀무관한것
이된다.

자유신용역시상호주의의핵심사상이다. 인민은행을조직하고, 인민
은행의유지비는이자 (거의 0% 의) 를통하여확보하게될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이스스로의생산수단을만들수있게할것이다. 신고전학과경제
학은상호금융이신용을창조함으로써화폐공급을늘리기에인플레이션
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말한다. 하지만신용이무작위로생성되는것이아
니라, 더많은재화와용역을생산하기위하여투입되는“합리화”과정을거
쳐생산되기에, 이는분명한오류다. 그렇기에자유신용은적은재화에기
반한더많은화폐를의미하지않고, 더많은재화를생산하기위한화폐를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산업연방에대하여이야기해야한다. 프루동은고
립된협동조합이직면할문제를인지하고, 연대와상호부조, 지지에기반
하여위험을절감하기위한연방을조직할것을제안한다. 모든산업이상호
연관성을가지고있기에, 노동자조직들이서로를지지해야한다는것은분
명해보인다. 나아가, 이연방은시장세력에의하여자본주의가부활하는
것을막는방법으로도적용될수있다. 또한연방은철도, 도로, 보건등공동
체적으로소유되어노동자협동조합에의하여운영되어야하는공공서비
스를운영하는방식도될수있을것이다.

상호주의는전략적으로개량주의적이다. 상호주의는자본주의를대
안기구와경쟁이라는수단을통하여대체하고자한다. 소수의아나키스트
들이이관점을지지한다.

² 엥겔스를인용하는것이마음에들지않을지는모르겠으나, “생산의목적, 즉상품의
생산은생산수단에자본의성격을가져오는것이아니다.”“상품의생산은자본존재의전제조
건중하나이기때문이다. (...) 생산자는그가생산한것만을팔기에, 자본가가아니다. 생산
자는생산수단을사용하여다른임노동자를착취하기시작하는순간자본가가된다.”엥겔스
는맑스가 < 자본 > 에서행한분석을반복하고있다.(그리고맑스는, 프루동의소유와점유
에대한구분을반복한다.)

(자유지의주의적) 사회주의의벽돌들

그렇기에아나키스트경제학은, 혁명이후, 아나키스트경제가발현하
는과정에서발전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여전히그기초에대한개론은이
야기할수있을것이다.

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은상당한공통점을가지고있다. 프루동이주
장하는바, “토지와노동의도구는사회적으로소유되어야”하고, “민주적
으로조직된노동자의조직”이“광범위한연방”으로단결하는것은핵심적
인상에대한훌륭한요약이다.

이러한경제는사용권, 점유, 사회화가사적소유와국가소유를대체
하게될것이다. 생산의자주통제역시 (크로포트킨이항상강조하는것처
럼, 노동자들은“산업의실질적통제자가되어야한다.”) 이를따를것이다.
그렇기에, 산업/농업/공동체의사회경제적연방이사용자와그이해관계,
그리고사용자그룹에따라구성되어야할것이다.

아나키스트경제는탈집중적경제일것이다. 크로포트킨이주장한바,
“사회혁명으로부터귀결할경제적변화는매우거대하고심오할것이어서,
하나의개인, 혹은여러개인들이새로운사회형태를상세히말하는것은불
가능한것이다. 이는오직대중의집단적작업으로만서술될수있다.”이는
결국참된자치와수평적관계에기반한경제체제들간의자유로운합의 (혹
은계약) 의필요성을의미한다.

간단하게말하자면, 생산은탈집중화될필요가있고, 집단간의합의로
대체될필요가있다. 집중화된체는주관에따라구성되는 (사용가치는, 그
정의에따라, 주관적일수밖에없다.) 특정한필요를충족할수없다. 또한
집중화된체는언제, 어떤재화가필요한지인지할수없다. 만약그인지
를시도한다해도, 결국이들은데이터의높에빠질수밖에없다.

이는개인과작업장, 공동체모두에적용할수있는것이다. 크로포트킨
이에견하였던것처럼, “강력한중앙집중적정부가사전에계획한수량만
큼의”재화들이“특정한날, 특정한장소로보내어질것을명령”하고, “특
정한관료가특정한날에그것을특정한창고에적재하는것”은“올바르지
않을”뿐더러, “매우유독피아적”이다. 실현가능하고매력적인사회주의
는인민의“협동, 열정, 지역적지식”을필요로한다.

이러한체제는적합한기술에기반할것이다. 여기에서나는아나키스
트들이대규모산업에반대하지않으며, 프루동으로부터꾸준히그입장을
명확히하여왔음을강조할필요를느낀다. 그렇기에우리는크로포트킨이
주장하는바와같이“현대산업을분석하여보면, 우리는그중일부가수천
수백의노동자들이한공간에모여협업하는것을필연적으로요함을알수
있다. 거대한철광소나광산기업들은필수적으로이범주에속한다. 대양
증기선은마을공장에서만들수없다.”자유로운사회에서산업의규모는객

게될것”이다. 이는“정치경제학의부정과사유재산의소멸을포함하는평등에기반한해결책, 다르게표현하자면노동자의조직”을건설할필요성을의미한다.

현재의투쟁으로미래를건설하자

오늘날우리는오직자본주의만을분석하고, 그움직임을이해하고, 그에내재된미래지향적요소들을인지할수밖에없다. 우리는두가지형태, 즉자본주의에내재된물적요소(대규모생산등)와, 자본주의에반하는요소(노동조합, 저항, 파업등)을본다.

이중후자는아나키즘의핵심이며, 아나키즘과(일반적으로전자를강조하는) 맑시즘을구분하는요인이다. 그렇기에우리는프루동이 1848년혁명과정에서, 바쿠닌이나크로포트킨과같은혁명적아나키스트들이노동운동을바라볼때, 협동조합적작업장과공동신용을지향한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혁명적아나키스트들은“직중에따라조직된노동자들이산업의모든부분을장악하고, 그산업을사회적편익을위하여관리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그리고우리는자본주의적압제와착취에맞서싸우는파업을위한총회가, 쟁의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총연맹이미래의사회주의경제에서사업장의총회로, 위원회로, 연방으로손수이변할수있음을본다.

이관점은사회주의가어디로부터오는지에대한이해를제공한다. 사회주의는자유를위해투쟁하는압제당한자들의자기행동으로부터, 아래로부터온다. 이는결국,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의기본구조는노동계급인민들이착취와압제에반하여진행하는투쟁의과정에서건설된조직임을보여준다.

이에시간이필요할것이다. 크로포트킨이강조하였듯, 아나키스트들은“혁명이일부사회주의자들의몽상마냥한순간에, 눈깜짝할새에다가오리라믿지않는다.”이는그가사회혁명이마주하게되리라제대로예견한경제적문제에관해서는특히옳다. 그렇기에크로포트킨이주장한바“우리는혁명이공개적으로코뮌주의적이거나, 실로집산주의적인성격을그반란적서곡에서부터드러낼수있기를기다려야하는가. 그것은혁명의사상을한번에, 모두던져버리는것과같은것이될것이다.”그리고이는모든혁명에서관측될수있다. 심지어스페인혁명과, 그과정에서 CNT의조합원들에의하여건설된집단생산은아나키스트들이계획한것도, 원한것도아니었다. 오히려이는시대가요하는특정한조건의산물이었다.

집산주의

다음으로설명한아나키스트분파는집산주의다. 가장유명한집산주의자는바쿠닌일것이다. 집산주의는상호주의와유사하지만, 보다덜시장의존적이다.(하지만여전히행위에의한분배에기반하고있다.) 하지만집산주의는보다코뮌주의적요소들을가지고있으며, 그지지자들다수는집산주의가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로진화할것이라바라본다.

결국, 집산주의는상호주의와코뮌주의사이의어딘가에있는것으로, 두분파의요소들을공유하고있다. 그렇기에, 우리는집산주의에대해서는더논의하지않을것이다.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와마찬가지로, 집산주의는자본주의를개량할수없다고바라보는혁명적분파다.

코뮌주의

먼저, 코뮌주의는맑스-레닌주의나스탈린주의가아니다! 그것은국가자본주의이지, 결코코뮌주의적인것이아니었고,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경우는말할것도없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자이며, 그이론은크로포트킨으로대변된다.

상호주의나집산주의와는다르게, 코뮌주의는시장을상정하지않는다. 코뮌주의는화폐나그대체재(노동전표등)의철폐에근간한다. 그렇기에코뮌주의에는임노동과임금체계가모두존재하지않는다.(“역량에따라일하고, 필요에따라분배한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집단소유의개념을노동의생산물까지확장한다. 이것은우리가치를공유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단지모든생산물을필요한모든이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옹호한수도승적, 군사적코뮌(공산)주의가아닌, 수확되거나생산된생산물들이모두의처분에맡겨져모든사람이원하는만큼가질수있는자유가있는자유코뮌주의”인것이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 화폐가존재하는한, 비자본주의적시장에서조차도자본주의적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와비슷한문제가발생할것이기때문에, 화폐의철폐를요구한다. 소득은필요를반영하지않으며, 정의로운사회는이결핍을인지해야한다. 시장은공공재나효과적인보건등의필요를충족할수없다. 시장은합리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막는다.(무언가의가격이 5 파운드라는것은그것이얼마만큼의오염을만들어내는지, 그것을만드는노동현장의조건이어떠한지를알려주지않는다.) 시장에서는원자화된개인의행동의결과로인하여집단적으로비합

리적인행동을하게된다.(이를테면, 시장에서살아남기위한경쟁은사람들이더열심히, 더오래일하게할것이다. 그리고이것은과생산을초래하고, 이러한시장신호에반응하여시장에진입하는기업들을날아결국공황을초래할것이다.) 이윤추구는불확실성을증대시키고, 공황의가능성을증대시키며, 그결과인사회적빈곤을증대시킨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에서의자원분배는가격의비교를통해서가 아니라, 재화의사용가치와상대적희소성모두를비교하여결정될것이다. 사용가치는긍정적측면(얼마나수요를충족하는가) 과부정적측면(어떤자원을사용하는가, 어떠한오염을초래하는가, 얼마나많은노동을내포하고있는가등) 을동시에고려할것이다. 이를통하여총체적인실질비용에대한정보가가격의뒤에숨지않고드러나, 그것에관하여논의하여, 합리적인사결정을하는데사용될수있을것이다. 희소성은자신들의생산역량과주문의양을서로소통하며비교할수있는노동조합이판단할수있을것이다. 노동조합이더많은주문을받을수록, 그생산물의희소성지표는올라갈것이고, 이것을바탕으로다른노동조합들은해당물질의대체재를찾을수있을것이다.

근거

말은쉽지만, 그저희망찬생각일뿐아닌가요! 라고말할수도있겠지만, 자유의주주의적경제사상에는실증적근거가차고넘친다.

이를테면, 노동자자주경영과이윤공유는생산성을증대시킨다. 노동자운영기업은자본주의적기업보다더생산성이높다. 이문제에관한 226개의연구중 94% 는긍정적효과가있다는결론을내었다. 흥미로운것은노동자소유기업이생산성에끼치는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에노동자가참여할수있어야했다는것이다.

나아가협동조합에는임금과처우의격차가크지않다. 놀랍지않은사실은, 높은수준의평등이생산성을증대시킨다는것이다.(노동자들이타인을노예화하거나, 타인의노동을착취하여부유해지는것을선호하지않기때문이다.)

주식시장의부재는어떠한가? 주식시장이실물경제에끼치는악영향은더말할필요도없다. 나아가, 주식시장에서경영진과주주들간의소통문제가심각한지를보라. 무엇보다, 주식시장이장기적성장보다단기적차익을더높게평가한다는것을, 그결과로특정한산업에대한과투자를초래하고, 결국위험과도박을증대시킨다는것을생각해보라. 은행중심의자본주의가주식시장중심자본주의보다호경기-불경기순환의정도가매우덜극단적이다.

그규모를어떻게키우는데대한추정에근거하여, 시장을광범위한의지적의사결정으로대체하는오류에기반하고있었다. 자본주의아래에서, 의사결정은소수의손에맡겨지게되는것은맞지만, 맑스는대기업들에의한계획이가능한것은그들이단하나의요인, 즉이윤에만기반하여있기때문임에대하여의문을가지지않았다. 자본주의에서의이러한축소주의가마치중앙계획이작동할수있을것처럼보이게하는요인이된다.

또한의사결정계층이이윤의증대와소수의지배력강화를위하여만들어진경제적구조와산업적구조가, 자본주의가거부하는것을지향하는사회주의에결맞다는신기한우연이놀랍지않은가!

신고전학과경제학과마찬가지로, 이러한오류적관념은그에합당한결과를낳는다. 러시아혁명중, 맑스주의자들은불세비키가공정위원회가주도하는(불완전하더라도) 진정한사회주의를, 그들이자본주의로부터물려받은중앙집중적산업구조를건설하기위하여약화시키는데에있어이데올로기적기반을제공하였다. 그리고이는경제와사회주의모두에게재앙이었다.

현재분석함으로써미래를그리기

맑스주의적관점이오류라면, 우리는미래를현대사회와그경향에대한분석에근거하여다시금그려내야한다.

나는아나키스트들이자본주의를무언가완벽한모형에추상적으로비교하지않으려함을강조하려한다. 프루동이그의저서 < 경제적모순의체계 > 에서주장하였듯, 노동자조직의“현재형태”는“불충분하며이행기적이다.”그는이지점에서유토피아적사회주의자들에동의하면서도, 그의자본주의모순과경향에대한분석과, 사회주의의기반에서그들의상을거부한다.

“우리는계속해서경제적사실과실천에관한학습을계속하고, 그의미를탐구하며, 그철학을구성하여야한다. 사회주의의오류는현실에천착하지않고환상적미래를향해나아가는종교적몽상에있다...”

이자본주의에관한분석과비판은긍정적미래상에반영된다.

이를테면, 프루동은노동자들이그들을노동을통제하고생산을위한“집체적힘”을전용하는사용자들에게“스스로의무기를팔아치우고, 자유를바쳤”기에생산과정에서착취당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집단적힘의원리덕분에노동자들은평등한사람이고, 그우두머리들과같은조합원이다.”“이러한조직은현실적이다. 그조직에참여하는사람은그러해야한다.”“평의회에서의설득력있는목소리”는, “적극적요소”는“평등”에기반하기때문이다. 이는자유로운접근성과사회화를의미한다. 그리고이로서노동자들은작업장에합류하는즉시“조합원의권리와특혜들을누리

다. 이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고, 그들이 “사회주의”라 칭하는 것에 대한 상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프루동은 이 체제가 전제정이라고 공격했다. 이는 옳았다.

이들의 미래상은 그다지 열망할 만하지도, 실천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를 떠나, 우리가 미래 사회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함축된 것은 오류일 뿐이다. 이를테면, 아담스미스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가 작동해 온 방식에 대하여 묘사했을 뿐이다. 추상적인 모형이 등장한 것은 한참 뒤에,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현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들은 전후 경제에서 세력으로서 최대치를 달성했고,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한 가정들에 기반하여 부적합한 모형들을 제시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형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현실의 경제와 현실의 인민들에게 끔찍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신고전학과 의진실한 신도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의 경우) 불가능하거나, (최악의 경우) 국가 자본주의인 맑스즘

사회주의 경제학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은 맑스와 연관된 것이다. 맑스는 사회주의에 관하여는 거의 쓰지 않았고, 그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세부적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남긴 계획에 대한 소수의 저작들은 사회주의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가 프루동의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것으로 제시한 < 철학의 빈곤 >에서도 이 문제는 드러난다. 이 책은 단 세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이야말로 구성의 실패에 관한 훌륭한 예시로서, 두명 사이의 경제관계를 논의할 때에 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 책은 수백만 사이의 경제관계를, 그 수백만이 구성하고 있는 생산물과 작업장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는 철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단순히 유토피아적이며, 맑스가 그의 경제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자 시도해보았다면, 그것이 명확했었을 것이다.

맑스는 < 철학의 빈곤 >에서 주장하던 즉각적인 (중앙집권적) 공산주의를 금새 포기했고, < 공산주의 자선언 >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 행기를 주장했다.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서서히 자리 잡아 자본주의적 구조 위에 중앙집중적으로 세워진 “사회주의”가 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중앙계획에 대한 옹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몬드라곤과 같은 자본주의 하에서 성공한 협동조합들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그룹을 구성하여 농업-산업 연방의 단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경우 자체적 금융 기구를 가지고 있다. (프루동의 사상이 정합적임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사회 혁명의 예시를 보라. 1936년 스페인 혁명의 레퍼런스를 들지 않고는 어떠한 아나키즘적 이야기도 완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스페인 혁명은 자유의지주의적 자주통제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 준다. 카탈로니아 산업의 다수는 성공적으로 집산화되었으며, 광범위한 토지는 집단 소유와 집단 통제의 원칙으로 경작되었다. 더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아르헨티나에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반란이 발발했을 때, 이는 문을 닫은 사업장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이 되찾은 공장들의 사례는, 사용자가 우리를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달성의 방법론

그렇기에,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의에 대한 열망과 달성 가능성이 전술한 대로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의문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방법론 안에는 자본주의 안에서 조합을 건설하고, 지지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프루동: “새로운 사회는 옛 사회의 심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화와 협동조합을 직장 폐쇄, 규제 금융, 국유화의 대안으로 선전하는 것 역시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은 이것이 저항의 문화를,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집단적 투쟁을 조직하는 과업의 일부로 바라본다. 즉, 직접 행동 (파업, 시위, 점거 등) 을 조직하고, 모든 투쟁이 그 내부인들에 의하여 주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이 과정에서 모든 조직이 아래로부터 자주 통제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목적의 일부 말이다. 이 목적은 인민들이 작업장을, 집을,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화를 현실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투쟁을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현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의 조직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설계도를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하면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아나키스트경제학

도입

경제학은 많은 경멸에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다. 말라테스타가 이야기하였듯, “성직자가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설교하여 인간을 유순한 신민으로 만든다면, 경제학자는 모든 것이 자연법칙이라 말하여 그렇게 한다.” 그렇기에 “누구도 빈곤에 책임이 없으며, 빈곤에 반하여 반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프루동은 “정치경제학은 가진 자들의 경제학이며, 사회가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빈곤을 생성한다는 이론의 적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다. 세계 곳곳에서 빈곤에서 달리는 인민들은 프루동에 동의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적이다.”

흔한 대안들이 더 나은 것으로 드러난 것 말고는, 바뀐 것은 없다. “모든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임금 받는 고용인으로 바뀐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이, 하나의 공장이 될 것이다.” 레닌의 시각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비-노동자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빈곤함은, 우리가 “총체적 경제를 우편 서비스를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레닌의 주장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다. “우편으로 향하다 (going postal)”이라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자.¹

크로포트킨이 오래 전부터 적었듯,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관념이 모두가 국가의 피고용인이 되는 국가 자본주의의 체계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을 관료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미래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¹ 역주 -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우정노동자들은 다종다양한 사업장 내 총기사고에 연루되었다. 1997년, <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타임즈 > 가 미국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평가하면서, 'going pos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과도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사업장 내 폭력 사태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안의 필요성

아나키스트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제한적 미래상에 대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를테면 엠마 골드만은 “실질적 부는 효용과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와 영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과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가?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이윤,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의 이름으로, 토지나 자본의 소유자들의 이익은 임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에서 비롯할 것이라고 말한다. ... 여기에서 사회경제학의 핵심 주제인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결국 모든 경제학 논문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주제는, 인간의 필요를 만족하는데에 필요한 에너지의 경제학의 구체적 형태가 된다.”

이는 사회주의가 과학을 넘어 자본주의와 부자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부르주아 경제학에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경제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태어날 새벽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아나키스트경제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나키스트 경제학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바라본다. 첫 번째의 의미는, 자본주의에 대한 아나키스트적 분석과 비평이며, 두 번째는 아나키즘적 경제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이론일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무엇에 반대하는가는 자유의 지주의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상에 반영될 것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꿈이 분석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경제학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비자유주의의 지주의적 대안들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왔지만, 두 방식 모두 가 오류였다. 하나의 방식은 미래 사회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사회주의에 관한 짧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미래식당에서의 레시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회주의자들에는 푸리에나 생시몽 부류가 있다. 이들은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고, 곧바로 두 가지가 명확해졌다. 그들의 완벽한 공동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엘리트주의적 본성이